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연준,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

- 지난 27일 버냉키 연준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에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.
 - 연준은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.4~3.9%에서 3.1~3.3%로 하향조정하였고,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.3~1.7%에서 2.1~2.8%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실업률은 8.8~9.0%에서 8.4~8.7%로 하향조정함.
 - 미국의 2011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유가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주택투자의 마이너스 성장(-4.1%)으로 2010년 4/4분기 3.1%에 비해 크게 둔화된 1.8%로 나타남.
 - 1/4분기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분기대비 18.0% 증가하였으며, 4월에도 7.2% 증가하면서 현재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갤런 당 3.88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, 유가 상승으로 1/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0년 4/4분기 4.0%에서 2.7%로 하락함.
 - 그러나 버냉키는 1/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주로 원유가격 상승, 기상악화, 국방지출 감소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2/4분기 이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.
- 한편 상무부가 발표한 3월 내구재 주문은 전달대비 2.5%의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, 컨퍼런스 보드의 4월 소비자신뢰지수도 전달에 비해 2.6%p 상승하는 등 제조업 경기와 소비심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.
 - 자동차, 항공기 등 운송부문의 내구재 주문이 5.9% 증가하였고, 운송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1.3% 증가하였는데, 이는 1/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.
 - 지난 3월 중동지역의 정치불안과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외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나, 4월 들어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달대비 2.6%p 상승한 65.4를 나타냄.

(CNN 등, 4/28)